

2013년 기사년 주요 종단 중정 신년법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진제 법원 스님 조계종 중정

비었음이나 神靈(신령)하고  
空(공)함이나 妙(묘)함이라.  
一段光明(일단광명)이 生佛(생불)의  
요긴한 기틀이요,  
廓徹十方(확철십방)이 凡聖(범성)의  
住處(주처)로다.  
기사년 새 아침에 온 국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우리 江山에  
무궁화가 만발하소서.  
人生을 빈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요, 말이 여위면 털이 길다.  
우리 모두 일상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하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또 의심 할지어다.  
옛날에 종심(從?) 沙彌僧(사미승)이 출가하여 남전(南泉) 도인을 친견하니  
선사께서 물으셨습디다.  
“그대가 어디서 왔는고?” “서상원(瑞祥院)에서 왔습디다.”  
“서상원에서 왔으면 상서스러운 상(相)을 보았는가?”  
“상서스러운 상은 보지 못했으나, 누워계신 부처님은 보았습디다.”  
“네가 주인 있는 沙彌僧인가? 주인 없는 沙彌僧인가?”  
“선사님, 정월달이 매우 추우니 귀하신 법체(높으신 몸) 유의하옵소서.”  
사미승의 대답이 이와 같으니, 남전 선사께서 원주를 불러 沙彌僧을 깨끗한 방에  
모시도록 하였습니다.온 국민 여러분, 이 두 분의 문답치를 아시겠습니까?  
若是金毛獅子 (약시금묘사자자)인 三千里外知問答處(삼천리의지문답처)리라.  
만약 금털사자의 적자(嫡子)라면 삼천리 밖에서 문답치를 알리라.

"부조(扶助)하고 예경(禮敬)하는 세상"



성초 충인 진각종 충인

대일(大日)의 광명이 기사년의 새아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새해 새아침의 상서로운  
기운이 천지에 감돌아서 지상의 모든 중생들이 안락한 새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심 인 진리의 종문(宗門)이 처음 법기(法旗)를 세우고 자주정신이  
국민의 심전(心田)에 보금자리를 틀더니 국운융성의 큰 물결이 반도(半島)의 지평을  
넘어서 세계의 방방곡곡에 한류(韓流)등 기적을 만들어 갑니다. 진각정법(眞覺正法)의  
 으뜸자리 총인원에 진각문화전승관(眞覺文化傳承館)을 건립하니 심인공부의 천년  
역사를 이어갈 터전으로 삼고 불자들의 신행(信行)에 정도(正道)가 굳게 서니  
평화세상이 영속(永續)하여 정도(淨土)가 건설됩니다. 중생의 분별심이 세간을  
흔탁하게 만들어 네 것 내 것 다투면서 사회를 어지럽혀도심인(心印)을 밝혀  
묘관찰지(妙觀察智)를 열면 온 누리가 상호 부조(扶助)하고 예경(禮敬)하는  
이원전문(二元專門)의 조화로운 세상이 됩니다. 새해의 햇살이 천년의 어둠도 순간에  
밝히듯이 자성(自性)의 천연한 광명이 중생의 미혹을 밝히면 세간의 미오(迷汚)가  
정화되고 정로(正路)를 열어서 이웃이 함께 웃음 가득한 생활로 만들어 갑시다.

"이 세상의 모든 보배가 여러분의 것"



혜초 스님 태고종 중정

세상의 모든 보배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닫혀있던 마음속의 대문빋장을 활짝  
열고 손에 손을 마주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五大洋(오대양)과  
六大洲(육대주)를 뛰어 넘고 寶槿山(보적산)에 올라가서 분수 따라 가슴 가득 보배  
담아 고향으로 돌아갈 때 모두 함께 하나되어 太平歌(태평가)를 부릅시다.  
높이 세운 깃발 아래 無孔笛(무공저)가 울리고  
琵琶(비파) 타는 아낙들과 長鼓(장고) 치는 남정네들  
吹打(취타)소리 장엄하게 온 세상에  
들려오네.  
東海漁夫(동해어부) 가슴에는  
鎔鑪爐(용광로)를 품어 안고 서해바다  
상공에는 無蓋車(무개차)가  
飛翔(비상)하며 남쪽바다 너른 곳엔  
無底船(무저선)이 노를 젓네!

癸巳年(기사년) 새해를 알리는 찬란한  
태양이 장엄하게 솟아오릅니다. 이  
상서롭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아래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새롭게 나아가는 주인공이 됩시다.  
동방인의 힘찬 발걸음은 현해탄의 거센  
파도 높였으며 태평양과 인도양을  
넘어서서 이제 창공을 향해 힘찬 날개를  
펼쳐 새로운 寶貝(보배)를 찾아  
나아갑시다.  
세상은 본디 彼我(피아)와 主客  
(주객)이 따로 없고 上下(상하)와  
貧富貴賤(빈부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그대들이며 이

"실천하는 그 자리에 새해가 찾아오니"



도용 스님 천태종 중정

一念普觀無量劫(일념보관무량겁)  
無去無來亦無住(무거무래역무주)  
如是了知三世事(여시요지삼세사)  
超諸方便成十力(초제방편성십력)  
끝없는 세월은 강물같이 흐르나니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며 그대로 머무는 것도  
아니라.  
인생사 모든 일이 끝없이 일어나니  
꿈에서 깨어나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한 줄기 깨달음의 길이 흰히  
열리리라.

청정한 연꽃이 진흙에서 솟아나듯  
고통과 번뇌 속에 깨달음의 싹이 틈다.  
보리의 싹은 눈 속에도 푸르고  
깊은 샘의 물줄기는 쉬지 않고 흘러간다. 실천하는 그 자리에 새해가  
찾아오니 정진하고 정진하여 관자재를 이루어라.

천태종 제16대 총무원장 도정스님 취임법회 봉행  
-12월 20일 천태종 총본사 단양구인사에서



▲ 취임사를 하는 천태종 신임 총무원장 도정스님

천태종은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대한불교천태종 제16대 총무원장 도정 스님 취임대법회’를 봉  
행했다.  
법회에는 총지종 인선 총무부장, 서강 총무과장, 조계종 포  
교원장 지원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정사, 관음종 총무원  
장 홍파 스님, 태고종 총무부장 능해 스님, 일본 천태종 니시오  
카 료코 스님, 중국 국청사 유원 스님, 장운석 새누리당 불자회  
장(국회예결위원장), 신진선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했다.  
천태종 도용 중정은 법어를 통해 “하얀 연꽃 고결하게 피어  
오르니 묘한 향기 도량에 가득하구나. 지난 세월 뉘고 뉘는 착

한 인연들 금세에 함께 만나 좋은 열매 맺으니 이 자리 사부대  
중 함께 기뻐하며 마음속 깊이 환희하는구나. 천태의 묘법이  
아곳에 다시 펼쳐졌으니 억조창생 구제중생 높은 원력을 받들  
어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정진하여라”고 교시했다.  
신임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취임사에서 “천태종은 한국불  
교 주요 종단의 하나로,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중차대한 임무  
도 갖고 있다”며 스님은 “우리는 전통의 계승과 함께 다원주의  
사회·다문화 사회에 걸맞는 다양한 창조적 미래 문화를 구축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 인사와 중국·일본 불  
교계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은 조계종 포교원장 지  
원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천태종과 한국불교 전체가 더욱  
발전해 정도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박  
당선인은 장운석 새누리당 불자회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천  
태종 제16대 총무원장 도정 스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  
다”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어 “도용 중정예하와 총무원장  
도정 스님을 중심으로 더욱 융창하고 발전하여 우리 국민들에  
게 더 큰 희망과 용기, 그리고 위안을 주시기를 기원한다. 더욱  
중요한 사회적 소임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단양 구인사= 김종열 기자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           |       |       |        |
|-----------|-------|-------|--------|
| 개 천 사     | 손 식   | 12/13 | 20,000 |
| 개 천 사     | 장 진 식 | 12/20 | 20,000 |
| 개 천 사     | 강 순 시 | 12/20 | 10,000 |
| 건 화 사     | 이 연 호 | 12/12 | 5,000  |
| 관 성 사     | 박 현 숙 | 11/26 | 10,000 |
| 관 성 사     | 수 정   | 11/27 | 30,000 |
| 관 성 사     | 황 성 녀 | 11/28 | 10,000 |
| 관 성 사     | 김 나 운 | 12/21 | 10,000 |
| 관 성 사     | 박 현 숙 | 12/24 | 10,000 |
| 관 성 사     | 인 선   | 12/24 | 20,000 |
| 관 음 사     | 신 막 심 | 12/10 | 10,000 |
| 기 로 대 관   |       | 12/24 | 10,000 |
| 기 로 대 자 행 |       | 12/24 | 10,000 |
| 기 로 밀 공 정 |       | 12/24 | 10,000 |
| 기 로 법 수 원 |       | 12/24 | 10,000 |
| 기 로 법 장 화 |       | 12/24 | 10,000 |
| 기 로 법 지 원 |       | 12/24 | 10,000 |
| 기 로 불 멸 심 |       | 12/24 | 10,000 |
| 기 로 사 흥 화 |       | 12/24 | 10,000 |

|           |       |        |        |
|-----------|-------|--------|--------|
| 기 로 상 지 화 | 12/24 | 10,000 |        |
| 기 로 수 증 원 | 12/24 | 10,000 |        |
| 기 로 총 지 화 | 12/24 | 10,000 |        |
| 기 로 선 도 원 | 12/24 | 10,000 |        |
| 단 음 사     | 법 연 지 | 12/21  | 10,000 |
| 덕 화 사     | 시 정   | 12/24  | 10,000 |
| 덕 화 사     | 원 만 원 | 12/24  | 10,000 |
| 만 보 사     | 갈 중 숙 | 11/26  | 20,000 |
| 밀 인 사     | 정 정 희 | 11/29  | 5,000  |
| 밀 인 사     | 이 혜 성 | 12/11  | 10,000 |
| 벽 롱 사     | 무 명 씨 | 12/13  | 10,000 |
| 벽 롱 사     | 무 명 씨 | 12/13  | 10,000 |
| 벽 롱 사     | 양 정 현 | 12/19  | 10,000 |
| 벽 롱 사     | 양 지 현 | 12/19  | 10,000 |
| 선 립 사     | 정 복 지 | 12/18  | 10,000 |
| 선 립 사     | 심 지 장 | 12/18  | 10,000 |
| 성 화 사     | 무 명 씨 | 12/14  | 40,000 |
| 수 인 사     | 김 봉 기 | 11/27  | 10,000 |
| 승 천 사     | 원 봉   | 12/18  | 10,000 |

|       |       |       |         |
|-------|-------|-------|---------|
| 승 천 사 | 지 선 행 | 12/18 | 10,000  |
| 실 보 사 | 조 순 애 | 12/3  | 120,000 |
| 실 보 사 | 이 순 옥 | 12/3  | 10,000  |
| 실 보 사 | 조 순 애 | 12/13 | 60,000  |
| 실 지 사 | 정 우 석 | 12/20 | 10,000  |
| 우리사랑  | 손 경 옥 | 12/15 | 3,692   |
| 나 누 미 |       |       |         |
| 정 각 사 | 구 정 희 | 12/5  | 20,000  |
| 정 각 사 | 박 후 휘 | 12/21 | 10,000  |
| 지 인 사 | 승 효 제 | 12/18 | 10,000  |
| 지 인 사 | 허 성 동 | 12/21 | 30,000  |
| 총 지 사 | 법 등   | 12/21 | 20,000  |
| 통 리 원 | 김 정 연 | 12/21 | 5,000   |
| 통 리 원 | 김 지 영 | 12/21 | 5,000   |
| 혜 정 사 | 박 순 희 | 11/27 | 50,000  |
| 혜 정 사 | 조 성 기 | 11/28 | 20,000  |
| 혜 정 사 | 김 경 미 | 12/12 | 20,000  |
| 흥 국 사 | 지 정   | 12/18 | 20,000  |
|       | 김 갑 선 | 12/20 | 10,000  |

11월26일부터 12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회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불교의 선정 14

사념처 수행

신념처 관법의 종류

신념처 - 몸에 모든 주의력을 기울이고 끊임없이 관찰  
신념처의 목적은 자아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화령  
(중앙교육원장)

신념처에서의 ‘신(身)’은 산스크리트로 *kāya* 라고 하는데 모인 것, 집합체, 조합 등의 의미가 있다. 곧 우리의 몸이 뼈와 혈액, 두발, 손발톱, 이빨 등의 여러 가지 요소로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신념처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된 우리의 몸을 관찰하여 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몸이 실은 더럽고 무상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몸을 관한다는 것은 색법의 하나하나의 특성, 작용, 현상과 그것이 일어난 원인 등을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신체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는 것이다. 우리의 신체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신체를 둘러싼 모든 것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거기에는 남녀의 구분도 없으며 오직 변한다는 사실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신체를 관찰하는 것을 ‘안주어신, 순신관찰(安住於身, 循身觀察)’이라고 표현한다. ‘안주어신’이라는 것은 주의력을 신체에다 놓고 우리의 신체를 분명하게 관하여 거기에는 ‘자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체에 대한 정신집중과 관찰을 통하여 자아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는 것이 신념처의 목적이다. 만약 우리가 신체의 모든 부분의 기능을 명료하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신체를 관하고 있으며 신체의 각종 조합을 관하는 것이지 ‘나’라는 것을 관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내가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나의 몸이 간지럽다든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질에 의존해서 발생하는 정신적인 것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예를 들면 본다는 것도 눈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물질과 마음의 두 요소가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며 거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순신관찰’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몸을 관찰하는 것인데, 일상생활에서의 행주좌와 모든 동작을 관찰하면 된다. 이렇게 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자기의 행주좌와 등 모든 신체 현상과 동작을 매우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가만 간다는 것을 알고 머무르면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앉으면 앉는다는 것을 알고 누우면 눕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행위와 동작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 몸에 대한 집착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다른 모든 집착도 벗어날 수 있게 되어 결국은 신체의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초월하게 되고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되어 다시는 생노병사에 따른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된다.

신념처의 수습차제

신념처를 닦는 방법은 남전불교와 북전불교의 차례가 약간씩 다르다. 팔리어 《대념처경》의 수습차제의 순서와 내용은 안반념(安般念), 사위의관(四威儀觀), 시시계념관(時時系念觀), 부정관(不淨觀), 사계분별관(四界分別觀)과 묘원구관(墓園九觀)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아함경》에서는 사위의관을 가장 먼저 놓고 다음으로 시시계념관을 닦으며 이선차이관(以善治惡觀), 이심치심관(以心治心觀), 안반념을 닦고 초선, 이선, 삼선, 사선관에 드는 것을 설

| 신념처의 14종 관법 |                  |                                                                                                          |
|-------------|------------------|----------------------------------------------------------------------------------------------------------|
| 9           | 묘원구관<br>(墓園九觀)   | 묘원구관(塋墓觀) 혹은 묘장관(塋場觀)이라고도 한다. 상상이나 그림을 통해 혹은 실제의 사신을 놓고 그것이 부패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신체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켜 탐욕을 제거하는 관법 |
| +           | 사계분별관<br>(四界分別觀) | 우주만물은 모두 사대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관찰해 내 몸이라는 것도 나와 내 것이라는 견해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고 관한다                                 |
| +           | 안반념<br>(安般念)     | 자식출입관(知息出入觀)이라고도 한다. 마음을 모아 호흡을 관찰한다.                                                                    |
| +           | 시시계념관<br>(時時系念觀) | 사위의관이 발전한 것으로 끊임없이 신체와 동작을 관찰하는 것                                                                        |
| +           | 사위의관<br>(四威儀觀)   | 행주좌와를 끊임없이 관찰하며 신체의 모든 동작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관법                                                                  |
| +           | 부정관<br>(不淨觀)     | 아집을 끊기 위해 신체의 부정함을 관한다                                                                                   |
| = 14        |                  |                                                                                                          |

하고 있으며 광명상(光明相), 선수관상(善受觀相), 삼십이부정관(三十二不淨觀), 지수화풍공식의 육대관 및 시해잔멸관(尸骸殘滅觀)의 13종을 신념처의 내용으로 들고 있다.

그리고 《증일아함경》에서는 신중이십칠부정관(身中二十七不淨觀), 사대관(四大觀), 제공누출부정관(諸孔漏出不淨觀), 시해잔멸관(尸骸殘滅觀)의 4종 관법을 들고 있다.

대체로는 《대념처경》에 설해진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근기가 다르므로 닦는 방법도 다르고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시기, 어떤 장소인가에 따라 닦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경전에서 그렇게 다양하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느긋하게

사념처를 닦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긴장을 완화하여 몸과 마음을 느긋하게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사념처 수행의 핵심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긴장하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대체로 우리가 자아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 이른바 스트레스라는 것이다. ‘나’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불안, 초조, 분노, 질투 등의 감정이 일어나며 이것들이 심해지면 신체적으로도 증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화가 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호흡이 거칠어진다. 또 기분이 가라앉을 때는 무기력해지고 움직이기조차 싫어진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온갖 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질병이 과거처럼 영양 결핍이라든가 청결 여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주로 스트레스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 많은 것도 우리의 신체가 마음 여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념처 수행을 닦게 되면 스트레스가 신체에 가져오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느낄 수 있으며 그러한 감각들을 분명하게 살필 수 있게 된다. 몸의 어떠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알아차리게 되는 훈련이 되면 자기의 몸과 마음에 대한 일체의 탐심이나 번뇌 등을 극복하여 그러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신념처의 수행이 깊어지면 화를 별걱 내거나 조금하게 구는 등의 정서상의 기복이 순화된다. 이것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노애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념(定念)의 힘으로 그러한 감정들이 일어날 때는 미리 알아차릴 수 있게 되어 그것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총지종 중앙종회, 유지재단, 원의회 임시 연석회의 개최

불교 총지종 중앙종회, 유지재단, 원의회는 12월 12일 오후2시 서울 벚꽃사에서 임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관선사 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인선 총부부장의 설명을 들었다. 참석한

위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이후 종헌, 종법의 절차를 거쳐 결정 될 예정이다.

벽룡사= 김종열 기자.



▲ 마니합창단 신임 손경옥 회장

서울 마니합창단 신임 손경옥 단장 선출

총지종 서울 마니합창단 신임 단장에 손경옥 보살이 선출 되었다. 합창단은 지난 00월 00일 총회를 열고 총기 42년부터 합창단을 이끌어 나간 신임단장으로 손경옥 보살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임

손경옥 회장은 “전임 박정희 단장이 이루어 놓은 합창단의 위상을 대, 내외적으로 더욱 상승시키고, 전국에서 제일 실력 있는 합창단으로 발돋움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화합을 우선으로 한

가족 같은 분위기의 합창단이 되기를 매일 비로자나 부처님께 서원하겠습니다.”며 취임의 각오를 밝혔다. 임기는 총기 41년 1월 1일부터다.

총지사=박정희 편집위원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관성사

주교: 정사 인선  
전수 정계월  
☎ 02-736-0950

밀인사

주교: 정사 원당  
전수 묘심해  
☎ 02-762-1412

법천사

주교: 정사 법경  
전수 덕현  
☎ 031-751-8685

벽룡사

주교: 정사 법일  
전수 자행정  
☎ 02-889-0211

실지사

주교: 정사 법우  
전수 인지심  
☎ 02-983-1492

정심사

주교: 정사 화령  
☎ 02-433-0374

지인사

주교: 정사 지성  
전수 승효제  
☎ 032-528-2742

시법사

기초승: 선도원  
☎ 032-522-7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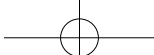
총지사

주교: 정사 법등  
전수 인덕심  
☎ 02-552-1080



서울 · 경인 교구 일동





## 충지동의보감

# 여학생의 생리불순



조선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요즘 10~20대 젊은여성들에게서 생리불순과 다낭성난소증후군 등의 생리질환이 점차 늘고 있다. 이전의 우리 어머님세대여성들보다 현대 여성들은 한층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자연과 멀어지는 생활을 하게 되면서 생리질환뿐 아니라 다양한 자궁질환의 발병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초경을 시작하고 난 뒤 2~3년간은 자궁과 난소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므로 이때에 나타나는 생리불순은 병적인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간 이후로도 건강한 생리를 하지 못할 경우라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 건강한 생리로의 회복을 위해 치료하고 노력해 가야한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매달의 생리가 건강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요즘 인기 있는 여성 화장품 광고의 문구들을 보면 "진정한 여성의 아름다움은 내면과의 조화에서 출발한다" 혹은 "당당한 여자가 아름답다" "여성의 우아함은 순백의 피부에서" 등 여성의 미의 기준이 과거의 외모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정신과 육체의 조화에 바탕을 둔 다양한 관점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더불어 여성을 보는 남성들의 시각도 많이 바뀌어서 예쁜 외모보다는 피부가 곱고 깨끗한 여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요즘 젊은 여성들의 최우선 관심분야가 피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형과 더불어 목돈을 들이는 부위의 일 순위가 피부라고 한

다. 하지만 진정한 피부미인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육체와 정신의 조화와 더불어 "자궁의 건강"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여성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여성건강의 지표인 자궁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생리인데 성인 여성의 경우 28~30일 간격으로 한번에 3~7일 정도 매달 일정하게 생리주기가 반복된다. 건강한 여성이라면 이처럼 한 달에 한번씩 찾아오지만 내, 외적요인으로 자궁에 이상이 생기면 월경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양도 많거나 적거나 종잡을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을 '생리불순'이라고 한다.

한방에서는 생리불순의 주요 근본원인을 자궁 및 생식기 기관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간, 비장, 신장의 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이들이 생리에 관여하는 충.임맥의 기능부조화를 야기시켜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 외에 여성의 자궁, 부속기관의 장애, 정서적인 불안정, 신체내 장기의 이상, 기타 질병에 의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월경의 양, 주기, 색에 따른 월경불순을 자세히 나누어 보면

- 1) 빠른월경-예정일보다 4~5일 이상 빠르다. 생리량이 적고, 가슴 답답, 요통 동반
- 2) 늦은월경-월경의 시작이 지연된다. 배란 장애, 자궁내막이상, 내분비장애가 원인일 가능성 다수.
- 3) 과소월경-월경지속일이 2일 이하. 자궁 미발육 또는 자궁내막손상이 원인
- 4) 과다월경-월경량이 너무 많고 빈혈, 어지럼증 동반.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식증일 가능성이 높다.

생리주기의 이상은 자궁건강의 적신호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다양한 자궁질환의 원인으로 발전하게 되니 이제는 생리불순, 생리통을 병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의식의 전환이야말로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불임 등 고질적 자궁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지름길이다. 더불어 진정한 여성미의 결정체인 "아름다운 피부미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 아닐 수 없다.

## 불자생활법률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고율의 월세를 부과할 때 구제방법

불자변호사 하동길 변호사의 생활법률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매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저는 7개월 전 서울 소재 김씨 소유 상가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90만원으로 1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사전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 김씨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시에는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원은 월세로 전환하되 그 적용금리를 3부(연36%)로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주변지역의 경우를 보면 2부(연24%)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집주인 김씨의 무리한 증액요구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1할 5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는“①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의 금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가임대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15%의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를 할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12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시행된 후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면서 그 임차보증금액도 위 법상 서울지역의 적용한도인 2억4천만원을 넘지 않아(귀하의 기준 보증금액은 같은 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해 1억+90만원×100=1억9천만원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상가임차인이라 할 것이므로, 임대인 甲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와 제11조의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날마다 좋은날

## 가을의 끝자락에서

오전부터 비가 오더니 불공을 끝내고나니 비가 그쳤다. 절에서 집까지는 한 시간 가량 걸리는 거리이지만, 운동이 부족하다고 걸어다니라는 의사의 권유로 오늘도 걸어가야지 마음을 다잡는다.

비 온 뒤골이라 축축이 젖은 땅을 보니 마음도 축축이 젖어온다. 오전에 내린 비로 공기까지 청명하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시니 맑은 공기가 들어와 머릿속까지 맑아진다. 기분도 상쾌하다. 중앙동 뒷길로 접어들자 바람이 분다. 길 양쪽의 우거진 은행나무에서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린다.

은행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꼭 노란 눈이 오는 것 같았다. 평소에도 다니던 길이건만 흩날리는 노란 은행잎들이 이렇게 멋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맑은편 이층 창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하며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절실했다.

향상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어 다녔지만 아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내가 세상을 잘 못 살아서 일까 하면서 생각하며 걷다가 문득 아니지, 멀리 있는 자식은 자주 볼 수 없지만 날만 새면 마주보는 도반들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멋진 날에 도반이 생각난다는 것 역시 보통 인연은 아닌가 보다.

비록 피톤치드가 뿜어져 나오는 길도 아니고 새가 지저귀는 오솔길도 아니고 매연만이 뿜어져 나오는 길이지만, 나는 내일도 이 길을 걸을 것이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도반들의 소중함도 느꼈다.

내일도 웃으면서 만나요, 도반님들!



성화사 김 경 숙

謹賀新年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건 화 사

주 교: 정사 록 정  
전수 법수연

☎ 054-761-2466

### 개 천 사

주 교: 정사 우 인  
전수 보명심

☎ 053-425-7910

### 국 광 사

주 교: 정사 안 성  
전수 유가해

☎ 054-772-8776

### 단 음 사

주 교: 전수 지 현

☎ 054-333-0526

### 선 립 사

기로스승: 보 원  
심 지 장

☎ 054-261-0310

### 수 계 사

기로스승: 안 주 화

☎ 054-745-5207

### 수 인 사

주 교: 정사 지 공  
전수 지희심

☎ 054-247-7613

### 승 천 사

기로스승: 원 봉  
지 선 행

☎ 054-746-7434

### 제 석 사

주 교: 전수 행 원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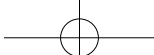
☎ 053-743-9812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대구·경북 교구 일동





## 비운의 황녀 덕혜옹주 특별전 - 2013년 1월 27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 당의를 입은 어린 덕혜옹주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정중수)은 덕혜옹주(德惠翁主) 탄생 100주년, 한국 50주년을 기념하여 일본 문화학원복식박물관(文化學園服飾博物館), 규슈국립박물관(九州國立博物館) 등이 소장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의 유품을 국민에게 최초로 공개하는 특별전을 12월 11일부터 2013년 1월 27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덕혜옹주는 조선왕조의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인 고종 황제가 1912년 환갑의 나이에 본 고명딸이다. 일제강점기인 1925년 14살의 나이에 강제로 일본 유학을 떠나 20세에 일본인과 정략결혼이 이루어졌다. 이후 정신병을 앓는 등 불행한 삶을 살다가 1962년 한국 후창덕궁 낙선재(樂善齋)의 수강재(壽康齋)에서 머물다가 78세를 일기로 1989년 타계하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덕혜옹주의 일생과 당시 대한제국 황실의 생활을 조명해 볼 수 있는 덕혜옹주의 복식과 장신구, 혼수품 등 유품과 관련 기록물이 공개된다. 이중 복식과 장신구, 혼수품 등 유품은 일본 도쿄(東京)에

소재한 문화학원 복식박물관과 후쿠오카(福岡)에 소재한 규슈국립박물관의 소장품이다.

덕혜옹주의 당의(唐衣, 조선시대 여자들의 예복) 등 복식은 덕혜옹주가 10세 이전에 입었던 유아복과 소녀 시절 복식이 대부분이다. 덕혜옹주와 이혼한 소다케유키(宗武志, 1908~1985)가 1955년 이 복식을 조선왕실에서 보냈던 다른 혼례품과 함께 영친왕(英親王 또는 英王) 부부에게 돌려보냈는데, 이것을 당시 일본 문화학원의 전신인 문화여자단기대학의 학장이었던 도쿠가와 요시치카(德川義親, 1886~1976)에게 기증하면서 현재까지 도쿄에 남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덕혜옹주의 유품 중에는 소다케유키의 본가인 쓰시마(對馬島-대마도)의 소(宗)가에 보내졌던 혼수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은으로 만든 찻잔 등의 소규모 금속공예품들이다. 이것들은 일본인 소장가가 구입하여 보관해 오다가 규슈국립박물관에 기증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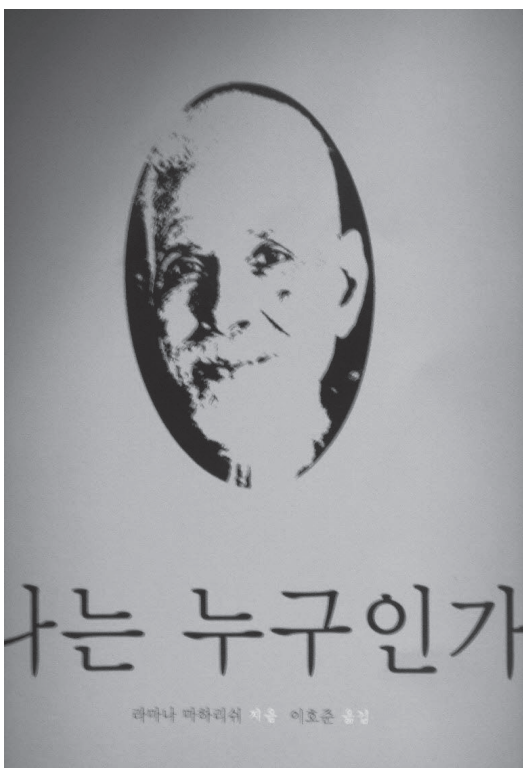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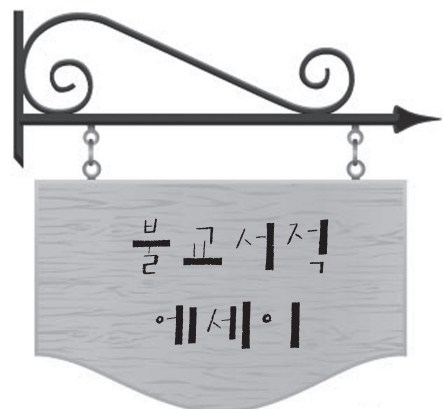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일본에게 국권을



▲ 덕혜옹주 어린시절 까지 두루마기

피탈당한 대한제국 황실과 우리 국민들이 겪은 온갖 고난을 상징하는 인물인 덕혜옹주의 인생과 조선왕실 여성의 복식·생활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십대에 깨달음을 얻은 천재의 일대기 라마나 마하리쉬 <나는 누구인가>



부처님께서는 7살 때 농부의 쟁기에 찍혀 죽은 지렁이를 또 새가 물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슬픔을 느끼고 나무 아래서 명상에 들었다는 내용이 경전에 나옵니다. 평범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지요. 깊은 감수성과 자비심, 그리고 집중력을 겸비해야 나올 수 있는 행동인데 부처님께서는 어린 나이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적 천재의 기질을 보인 것입니다.

부처님,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을 정도로 오쇼 라즈니쉬가 극찬을 받지않았던 인도 출신의 위대한 영적 스승인 라마나 마하리쉬 또한 천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십대에 깨달음을 얻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마하리쉬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니다. 공부보다는 체육을 좋아하고, 형에게 놀림이나 받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니다. 그런데 17살 때 진아를 체험합니다. 이 체험 이후 마하리쉬는 공부하던 연필을 내려놓고 명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러다가 형의 등록금중 일부를 가지고 '아루나찰나'라는 산으로 들어갑니다.

아루나찰나산은 마하리쉬에게 특별한 산이었습니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의 내면에서 진동으로 느껴졌던 이름이고, 마하리쉬는 이 특별한 산에서 깊은 삼매에 들었습니다. 재미와 모기, 파리 등의 해충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그는 육체에 대한 의식도 감각도 잊었습니다. 벌레들이 살을 파먹었지만 눈치 채지 못할 정도의 삼매였습니다.

구도의 과정에서 보여준 마하리쉬의 삶은 부처님처럼 천재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노력에 의해 한 단계씩 수행이 이어간다면 그는 광풍에 휩싸이듯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갑작스런 진아 체험이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빠져드는 삼매, 수행을 꿈꾸는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부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드라마틱한 수행담을 갖고 있는 마하리쉬의 깨달음의 본모습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속 탐구해 들어감으로써 가능하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다른 생각들은 모두 사라진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이 마치 마른 장작들을 다 태운 뒤에 스스로도 타버리는 불쏘시개처럼 사라지는 때가 온다. 그러면 그때 깨달음이 드러난다.(24페이지)

마하리쉬의 깨달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아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하리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속 탐구해 들어가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 이외의 생각들은 모두 사라지고, 나중에는 이 마지막 생각도 사라지면서 진아를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하리쉬에 의하면 진아의 본질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아에 의해 살게 되면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상계에 탐착함으로써 진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또한 행복과도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된다고, 삶이 고통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진아는 우리가 실재한다고 굳게 믿는 현상계가 완전히 사라질 때 나타나는 것으로, 진아와 현상계는 해와 달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사라져야 다른 하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현상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진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하리쉬가 표현한 진아는 불교적 용어로 불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불성을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합니다. 마하리쉬는 어린 시절의 진아체험과 깊은 삼매를 통해 완전한 진아를 깨달았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아탐구를 통해 진아를 깨닫는 방법을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언어로 표현해 왔습니니다.

일대기와 제자들과의 문답을 통해 마하리쉬의 깨달음을 보여준 책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청하출판사)입니다. 생애는 짧은 일화와 더불어 소개되지만 천재의 삶은 강한 인상을 주는 편이고, 그가 소개하는 깨달음은 선불교와 많은 면에서 유사했습니다. 자아탐구의 방법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두는 선불교의 <이 뭇고> 화두와 닮았으며, 완벽한 진아를 체험하는 사람이라면 잠을 잘 때도 깨어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성철스님의 말씀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김은주(자유기고가)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경인교구

지 회 장 : 김 은 숙  
수석부회장: 보 덕 제  
              노 진 숙  
총 무 : 이 인 성  
              복 지 원

부산경남교구

지 회 장 : 신 인 록  
총 무 : 정 남 선

대구경북교구

지 회 장 : 김 수 자

충청전라교구

지 회 장 : 민 순 분  
총 무 : 이 민 자

각 사원  
신정회 회장과  
임원 일동



불교총지중 신정회 일동



謹賀新年

불교총지종 본산 '총지사' 서원당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심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소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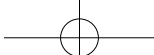


불교총지종

## 불교총지종 총기42년 일정

- 1월 7일 ~ 1월 13일 새해불공
- 1월 21 ~ 1월 23일 청소년 스키캠프
- 1월 29일 종조탄신일
- 2월 19일 ~ 4월 8일 상반기 49일불공
- 5월 10일 ~ 5월 12일 연등회 연등축제
- 5월 17일 부처님 오신 날
- 5월 28일 ~ 7월 15일 하반기 49일불공
- 7월 16일 호국안민기원 대법회
- 9월 8일 종조멸도절
- 9월 예정 경로법회 & 축구대회
- 10월 예정 통일음악예술제
- 12월 24일 창교절





# 총지종보



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2013년 1월 2일

음력 11월 21일

일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지성(이거식)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7년 제158호



## 계사년 효강 종령 법어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진언행자 여러분의 가정 가정에 범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서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무량한 이타행과 보시를 중요시 합니다. 경전의 곳곳에서 끊임없이, 조금도 지침이 없이 반복해서 재물과 노동을 이웃과 나누고, 지혜의 말을 함께 나누어 가지며, 따뜻한 자비를 이웃에게 아낌없이 베풀라고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이웃

은 사람은 물론 생명을 가진 모든 존제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소유를 행기는 자리에서 욕심과 탐욕이 일어나고, 반대로 버리는 자리에서 청정심이 일어나며 그 청정심을 키우는 일이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는 자비심에 근거한 것으로 그것은 자신과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물론 공덕의 복전이 됩니다. 불교에서 인간과 인간, 그리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은 상호 의존 관계에 의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거대한 기능적 질서체라고 합니다. 개인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과 상호 연관적 관계를 가지면서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회 연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은 사회의 모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삶에 은혜를 입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는 이러한 은혜를 갚는 길은 자신도 남에게 베푸는 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뱀의 해입니다. 뱀은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성장할 때 허물을 벗는다하여 죽음으로부터 매번 재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불사(不死)의 상징으로 무덤의 수호신, 지신(地神), 죽은 이의 새로운 재생과 영생을 돕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알과 새끼를 낳는 뱀의 다산성(多産性)은 풍요(豊饒)와 가복(家福)을 뜻합니다.

이렇듯 새해에는 뱀이 허물을 벗듯 지난 과거의 원망심과 수원을 모두 참회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설계하여 저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가슴 가득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새 마음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새로운 희망과 행복의 불빛을 밝혀 가정마다 풍요와 가복이 함께하기를 비로자나 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계사년 새해 아침  
불교총지종 종령 효강 합장

## 계사년 통리원장 신년사



계사년 뱀띠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의 가정 가정에 범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서원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쳐서 부처님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시다. 깨침을 통해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와 이웃, 나와 세계를 나누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에 욕심내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내고 짜증냅니다. 그 결과는 바로 대립과 갈등이요,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진리의 실다운 모습에 눈뜰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전환됩니다. 전환된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나와 이웃을 돌로 보지 않는 삶이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삶입니다. 나와 남, 나와 세계를 나누던 '나' 다 하는 벽이 깨지는 순간이 바로 깨침입니다. 그 벽이 깨짐으로 분리 대립되던 나와 이웃, 나와 세계는 비로소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인 세계를 사는 삶이 다름 아닌 자비의 삶인 것입니다. 계사년 한 해도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나' 자신을 정화하고 그러한 정화를 바탕으로 사회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선도하는 대승적인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 한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중제망의 이 세계는 나 한 사람의 마음가짐으로부터 전 개 되는 것입니다. 아집과 이기심의 껍질을 벗고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보살정신을 구현할 때에 비로소 나의 행복과 내 가정의 안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들이 불보살님의 가지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번함없이 건강하시며, 더욱 청정한 삶을 영위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계사년 새해 아침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지성

## 불교의 생활화와 세계화를 위한 노력

- 제 40주년 창교절 기념 법회 봉행 -



▲ 제40주년 창교절 유시문을 교시하는 효강 종령 예하

불교총지종 제40주년 창교절 법회가 12월 24일 총본사 총지정 대성사에서 주옥같은 진언과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사종수법을 비롯한 정연한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을 갖춘 정

통밀교 총지종을 세상에 선포한 날이다.

총본사 서울 총지사에서는 효강 종령 예하를 모시고 총지사 주교 법등정사의 집공으로 제40주년 창교절 기념 법회를 열었다. 효강 종령 예하는 전국의 사원으로 전달된 유시문을 통해 "원정대성사님께서는 종명을 지으실 때 대한불교총지종이라 하지 않고 불교총지종이라 명명하신 이유는 불교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모든 세계인들의 위한 종교이어야 하고 세상 모든 중생들을 대상으로 교화해야 한다는 큰 뜻 때문입니다.

총지종에서 창설한 국제재가 불교지도자대회에서도 알 수 있듯 총지종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하여 참 불교의 뜻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2007년 국제재가불교대회를 조

직하고 매년 대회를 개최하여 동남아는 물론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등의 불자들의 참여로 총지종의 위상을 알리고 동시에 불교의 생활화와 세계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며 총지종 종풍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다하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를 비롯한 여러 행사를 통해 그동안 잠재되어있던 교도들의 단합된 모습을 올해에도 이어나가기로 서원했다. 이날 법회 후에는 총지사 신정회 주최로 '웃놀이'가 4개 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전국의 사원에서도 창교절을 맞아 종단 발전의 새로운 서원을 다지고, 서로를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총지사=김종열 기자

## - 총기42년 불교총지종 인사발령 -

| 소속  | 불명  | 이름  | 발령사항                           | 발령일자                           |
|-----|-----|-----|--------------------------------|--------------------------------|
| 시법사 | 한수원 | 권남이 | 시법사 주교근무를 면함.<br>백월사 주교근무를 명함. | 총기41. 12. 26.                  |
| 선립사 | 심지장 | 박주혜 | 기로스승에 명함.<br>선립사 근무를 명함.       | 총기42. 01. 01.                  |
| 삼밀사 | 원송  | 서진업 | 삼밀사 주교근무를 면함.<br>기로스승에 명함.     | 총기41. 12. 26.<br>총기42. 01. 01. |
| 삼밀사 | 인법계 | 박재연 | 삼밀사 근무를 면함.<br>기로스승에 명함.       | 총기41. 12. 26.<br>총기42. 01. 01. |
| 실지사 | 연등원 | 권승자 | 실지사 주교근무를 면함.<br>기로스승에 명함.     | 총기41. 12. 26.<br>총기42. 01. 01. |
| 기로  | 선도원 | 신순덕 | 시법사 근무를 명함.                    | 총기41. 12. 26.                  |
| 정심사 | 진일심 | 권옥생 | 정심사 주교근무를 면함.<br>혜정사 주교근무를 명함. | 총기41. 12. 26.                  |
| 총지사 | 화령  | 이중석 | 총지사 근무를 면함.<br>정심사 주교근무를 명함.   | 총기41. 12. 26.                  |
| 백월사 | 법우  | 유성형 | 백월사 주교근무를 면함.<br>실지사 주교근무를 명함. | 총기41. 12. 26.                  |
| 백월사 | 인지심 | 이옥진 | 백월사 근무를 면함.<br>실지사 근무를 명함.     | 총기41. 12. 26.                  |
| 혜정사 | 서령  | 오세길 | 혜정사 주교근무를 면함.<br>삼밀사 주교근무를 명함. | 총기41. 12. 26.                  |
| 혜정사 | 혜원정 | 김혜정 | 혜정사 근무를 면함.<br>삼밀사 근무를 명함.     | 총기41. 12. 26.                  |

###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謹賀新年  
총기 42년 · 불기 2557년



# 불교총지종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랑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Tel. 02)552-1080~1083 | Fax. 02)552-1082 | www.chongji.or.kr



## 신림동 (구)벽룡사 부지 『희락』 도시형 생활주택 준공

-12월 12일 오전10시 진택불공 봉행



▲ 『희락』 도시형 생활주택

지난해 시작된 신림동 (구)벽룡사 부지 『희락』 도시형 생활주택이 준공되어

스승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선 총무부장의 집공으로 열렸다. 지성 통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림동 도시형 생활주택 『희락』이 준공됨으로 종단 부동산 활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통리원 집행부는 지혜를 모아 삼보정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며 그동안의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

오후4시에는 효강 종령예하

가 직접 『희락』 도시형 생활 주택 준공현장을 방문했다.

효강 종령은 각 세대별 구조와 자재 마감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입주자들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생활하기를 서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희락』은 2개동 총50세대로 6.5평대부터 10평대까지 다양한 평수로 입주민을 맞고 있다. 신림동=김종열 기자

분양문의  
(010)-7928-0800,  
(010)6626-7519

## 부산. 경남 교구 교화의 어머니 정각원 대전수

부산 정각사에서 제29주기 추선법회 봉행



▲ 故 정각원 대전수

12월 28일 부산 정각사에서는 부산.경남교구의 초석을 마련하고, 교화의 문을 연 ‘정각원’ 대전수의 제29주기 추선법회가 봉행되었다. 정각사 주교 대원정사의 집공으로 열린 이날 법회는 부산. 경남 교구 스승님들과 교도들이 동참, 스승님의 극락왕생을 서원했다. ‘정각원’ 대전수는 총기원년에 정각사 주교의 소임을 맡아 교화를 시작하셨다.

총기9년에는 통리원 교정부장을 맡아 통리원 교정 업무의 기틀을

마련하고, 총기10년 부산교구장에 임명되었다.

정각원 대전수는 법신 비로바나 부처님의 진언 밀법을 전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행과 교화에 매진하셨다.

스승님의 교화를 받고 수행을 이어나가는 교도들은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모습을 아직도 그리워했다.

정각사 = 이상록 통신원

## 만보사 합창단 발표회 열어



▲발표회를 연 만보사 합창단

오늘은 기쁜날! 만보사 합창단이 예쁜 모습과 아름다운 음성으로 만보사 서원당에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합창 발표회를 보살대중 앞에서 열었다. 만보사 스승과 합창단 보살들의

원력으로 다시 태어난 합창단이기에 더욱 감회가 새롭고 가슴 벅찼다.

합창단은 12월 23일 창교절을 하루 앞둔 자성일에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물을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 전 공양을 올렸다.

점통더위와 냉기가 싸늘한 날씨에도 섬세하고 자상하게 지도해 주시는 묘원장 전수와, 따뜻한 마음으로 단원들을 챙기고 보듬어주시는 이주자 단장이 계셨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합창을 이어올 수 있었다.

승원 정사의 격려 속에 그동안 같이 닦은 곡 중에서 발표곡을 묘원장 전수가 선정했다. 만보사 합창단원들도 열심히 연습하고, 오랜만에 입어보는 합창복을 서로 웃으며 골라주니 다시 태어난 듯 설레고 기뻐했다.

합창단 발표하는 당일 대전에 눈이 많이 왔다. 눈이 오면 스승들은 새벽부터 만보사 마당과 골목길까지 제설작업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한다. 비록 노래 부르는 사람보다 청중이 적었지만 즐겁게 발표회를 마칠 수 있었다.

항상 사원관리와 교화에 힘쓰시는 승원 정사, 묘원장 전수께 합창단원과 교도들은 항상 따뜻하고 훈훈한 감사의 마음을 전

취재=만보사 유복근 통신원

## 사원간의 화합을 통해 새로운 발전 모색

-서울. 경인 교구 신정회 합동 총회



▲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총회가 열린 통리원 반야실

12월 13일 서울.경인지역 스승님들과 신정회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였다. 통리원 2층 반야실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총기 41년 각 사원별 신정회 활동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계사년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법등 서울.경인 교구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생활과 병행하여 신정회 활동까지 하시는 보살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스승과 보살님들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하며 교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총지종 교세발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지사의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전개하기를 서원합니다.”며 신정회 간부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김은숙 서울.경인 신정회장은 “자연은 소리에 따라 계절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듯이 각자의 분수대로 화합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며 지난 한 해의 소감을 말했다.

총회 도중 친히 방문하신 효강 종령 예하는 특별법문을 통해 “서울.경인 교구 만덕장 회장님과 간부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저 자신도 종단의 발전과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매일 참회를 드립니다.

나와 중생과 부처가 바로 하나다 하는 ‘삼평등’의 진리가 실현되는 순간 우리 모두가 평안한 것입니다. 승단과 교도가 하나로 화합되어야 진정한 교단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원정 대성사에서 종명을 대한불교 총지종으로 하지 않고 ‘불교 총지종’으로 명명하신 것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총지의 진언 밀교를 교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스페인 국제제가불자대회와 부산 종립 동해중학교에서 열린 통일음악예술제는 문화를 통한 포교와 세계화를 지향하신 종조님의 큰 뜻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입니다.”며 축하했다.

이날 회의는 내년도 주요 계획에 대한 토의와 스승과 간부들 간의 합창례를 끝으로 모두 마쳤다.

통리원 반야실=이인성 편집위원

## 총지사 이정수 보살 손녀 김정현 양 서울대 합격

총본산 총지사에 경사가 났다.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불공에 동참 가정과 자녀를 위해 비로자나 부처님 전에 서원한 ‘이정수’ 보살이 그 주인공이다. ‘이정수’ 보살의 손녀인 진선여고 3학년 ‘김정현’ 양이 이번 서울대학교 입시에서 미대

산업디자인과에 수시 합격했다. 이번에 서울대에 합격한 김정현 양은 가정에서는 효행을 다하고, 학교에서는 모범적인 학생으로 학교 공부 위주로 최선을 다해 입시 준비를 했다.전한다.

이정수 보살은 입교 당시에는 매일 불단 청소를 하면서 하심을 배우고,

마음을 청정히 하고 불공에 임했다. 지금도 종조전 청소를 하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신행정진하는 청정심의 보살이다. 지금도 매일 새벽 불공부터 대중불사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언 수행 중이다.

총지사 = 최영아 편집위원

정리=김종열 기자

謹賀新年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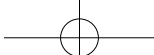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지성  
초록어린이집 원장 황화성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현동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층  
문의. 02-445-2326





# 계사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대원  
중앙총의회 의장

불자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의 가지로 가정에 만복이 깃들이기를 서원합니다.

『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간 사람들아, 부자간이나 형제간이나, 그 밖의 모든 친속 간에 마땅히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미워함이 없어야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아내요, 남편이요,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셀 수 없을 만큼의 인연의 결과로 불자여러분들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졌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화평한 얼굴로 밝은 미소로 아침을 연다면, 가족의 하루는 제불보살님들의

각박한 세상에 이상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인사를 받은 그 사람도 하루 종일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불보살의 화신이자 부처님 그자제입니다. 모든 이들을 부처님 공경하듯이 하면, 내가족의 갈등, 사회의 갈등, 국가의

## 부처님 마음으로 항상 밝은 미소로 생활하는 한해

하며, 있는 것 없는 것을 서로 주고받아 탐내거나 인색함이 없어야 하며, 항상 상냥한 말과 부드럽고 화평한 얼굴로 대하여 아예 다투지 말아야 한다.” 고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불자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가지를 받아 평안 할 것입니다. 작은 오해로 미움의 씨가 있다면 서로를 공경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아침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상냥한 웃음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 보세요. 요즘같이

갈등, 세계의 갈등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 마음으로 항상 밝은 미소로 생활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비로자나 처님 전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 육바라밀을 행하고 팔정도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지공  
대구. 경북 교구장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 행운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들은 모두 영원을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이 아니라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 태어나고 늙고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 태초로부터 우주공간속에 살아있는 것이다. 그

이름을 마음 또는 영혼(의식)이라 한다. 그 마음의 본체를 진리이며 ‘佛’이라 한다. 선정에 들고 싶으면 선정에 들고, 웃고 싶으면 웃어 보고, 보고 싶으면 보고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는 것이 마음이 하는 것이다.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은 마음이 쉽 없이 行(선악-善惡)을 짓는 것이다. 마음이 영원한 생명체인 줄 알면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살인지 알아야 한다. 行(선악-善惡)이 운명이 된다면 누가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하겠는가?

자신의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동이 지금 내 삶의 모습이라면 육바라밀을 행하고 팔정도를 실천하면 운명은 개척된다. 모든 행위는 자신의 심인에 각인시켜놓고 자기가 되돌려 받는다.

“천 칸의 대궐이라도 하룻밤 자는데 한 칸 방이요,

만석의 땅을 가져도 하루 먹는데 쌀 한 되박이다.” 『선가귀감』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광명이 충만하시길 서원합니다.

## 탐, 진, 치 삼독을 내려놓고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수현  
부산 경남 교구장

끝이 없습니다. 모든 괴로움을 버리고 궁극의 즐거움을 얻어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탐, 진, 치 삼독을 내려놓고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임진년 한해가 마무리 되고 희망찬 계사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총지종 불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서원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행복보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물질적 복락은 아무리 채워도

지난해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은 삶에 큰 목표를 이루는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을 되돌아보기 보단 새 마음, 새 뜻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계사년 새해에 총지종 불자님들 복 많이 지으세요. 성도합시다.

## 수행을 통해 삼업청정을 이룬다면 그것이 곧 영원한 행복을 얻는 길



법우  
충청 전라 교구장

계사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의 힘찬 기운을 많이 받으셔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구족하시길 서원합니다.

계사년은 뱀의 해입니다. 뱀은 다산(多産)과 풍요(豊饒), 재물(財物)과 가복(家福), 생명의 탄생과 치유, 지혜와 예언력, 끈질긴 생명력 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풍요와 재물, 가복 등은 우리들이 갈망하는 서원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행복을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마음을 비우는 공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안에 탐욕과 분노와 질투라는 마군을 물리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단속하는 가르침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가 청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지계(持戒)를 말합니다. 청정하지 않고는 지혜를 얻을 수 없으며 그 무엇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소원성취는 업장소멸에 있고 그것은 바로

‘청정지계’에 있습니다. 삼업청정(三業淸淨)을 말합니다. ‘삼업청정’에서 업장소멸, 소원성취, 나아가 지혜와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깊은 수행을 통해 삼업청정을 이룬다면 그것이 곧 영원한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무절제와 무계획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다스리고 지배하며 작은 일에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행복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1년 365일을 새해 아침을 맞이 하듯 하여야 합니다. 하루를 즐겁고 항상 새롭게 맞이하면 마음 속에는 행복과 즐거움의 씨앗이 움트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로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밝고 뜨거운 태양, 둥근 보름달과 같이 광대무애원만한 마음을 지니신다면 계사년 한 해도 더욱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 될 것입니다.

## 서원과 정진으로 부족함을 채우고



법등  
서울 경인 교구장

지난 한 해는 당신이 있어 좋았습니다. 365일 모든 날이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좋은 내 인연이었으므로 감사합니다.

또다시 주어진 새해 365일, 그 보석 같은 시간들을 당신을 위해 쓰겠습니다. 좋은 말 듣기에만 익숙해지면 듣지 못하는 말이 있게 되고, 싫은 말 듣기를 멀리 하다보면 좋은 말도 많이 놓치게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하다 느낄 때 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고, 마음이 더 여유로워 집니다. 새해 첫날 아침 불공드리면서 내가 좀 더 좋아지기를 서원하나 세워 봅시다. 서원과 정진으로 부족함을 채우고 당신의 2013년이 더 건강하시고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謹賀新年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정각사

주 교: 정사 대원  
전수 정인화  
정사 법상  
전수 정원

☎ 051-552-7901

### 관음사

주 교: 전수 정원심

☎ 051-896-1578

### 단향사

주 교: 정사 경원

☎ 055-644-5375

### 덕화사

주 교: 정사 시정  
전수 원만원

☎ 051-332-8903

### 밀행사

주 교: 전수 금강륜

☎ 055-354-3387

### 법성사

주 교: 전수 묘홍

☎ 051-468-7164

### 삼밀사

주 교: 정사 서령  
전수 해원정

☎ 051-416-9835

### 성화사

주 교: 정사 지광  
전수 수심정

☎ 051-254-5134

### 실보사

주 교: 정사 덕광  
전수 보현

☎ 052-244-7760

### 운천사

주 교: 정사 도현  
전수 자인행

☎ 055-223-2021

### 일상사

기초승: 수행월

☎ 055-352-8132

### 자석사

주 교: 전수 법상인

☎ 051-752-1892

### 화음사

주 교: 정사 수현  
전수 자심관

☎ 055-755-4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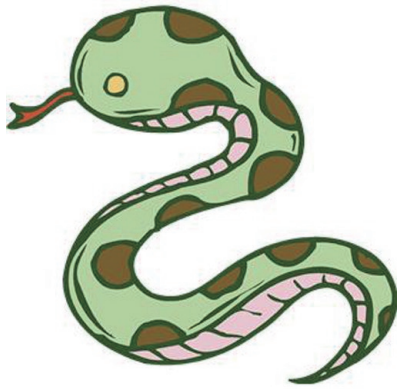


부산·경남 교구 일동



# 불사, 재생, 영생의 상징 지신(지신) 『뱀』

## － 계사년 민속에서 찾아본 뱀의 의미



계사년(癸巳年) 올해는 뱀의 해이다. 동양의 역법에 의하면 뱀(巳)은 12지의 여섯 번째이고 육십갑자에서 을사(乙巳), 기사(己巳), 계사(癸巳), 정사(丁巳), 신사(辛巳) 등 5번 순행한다. 뱀(巳)은 시각으로는 9시부터 11시, 방향으로는 남남동, 달로는 음력4월에 해당한다.

한국인의 12분의 1은 아마도 뱀띠일 가능성이 있기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뱀과 연관을 맺고 살고 있다. 조선후기부터 민간에 크게 유행한 『당사주』에는 뱀띠는 “용모가 단정하고 학업과 예능에 능하며 문무를 겸비”하였다고 쓰여 있다. 심지어 동물로서 뱀은 다른 심지어 동물에 뒤지지 않는 대접을 받고 있었으며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운명을 같이하는 친숙한 존재였다.

과충류인 뱀은 일상생활에서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거나 흉물로 배척당하지만 민속신앙에서는 신적 존재로 위치하면서 일찍부터 다양한 풍속이 전승되고 있다.

뱀은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다. 땅에 가장 많이 몸을 대고 살기에 땅과 밀접하며 냉혈동물이고, 독을 품고 있어 두렵다. 그런가 하면 뱀이 크면 구렁이가 되고, 이

구렁이가 더 크면 이무기가 되며 이무기가 여의주를 얻거나 어떤 계기를 가지면 용으로 승격한다는 민속체계가 있다. 뱀의 범주에는 이무기, 구렁이, 뱀이 다 포함된다.

뱀은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성장할 때 허물을 벗는다. 이것이 죽음으로부터 태번 재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불사(不死)→재생(再生)→영생(永生)의 상징으로 무덤의 수호신, 지신(地神), 죽은 이의 새로운 재생과 영생을 돕는 존재 인식했다. 또 많은 알과 새끼를 낳는 뱀의 다산성(多産性)은 풍요(豊饒)와 재물(財物),가복(家福)의 신이며, 뱀은 생명 탄생과 치유의 힘, 지혜와 예언의 능력, 끈질긴 생명력과 짝사랑의 화신으로 문화적 변신을 하게 된다. 우리가 뱀을 각기 문화적 맥락 속으로 상징화할 때 생긴 문화적 오해 때문이다.

〈범화경〉은 뱀의 길다란 형태와 삼각형 머리를 남근의 형태로 해석해 애욕의 뿌리로 보았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뱀을 '엿구렁이'라 해서 신성시하였다. 구렁이가 집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재물을 내려준다 해서 길조로 여겼다. 물론 죽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오히려 엿구렁이가 집에서 나갈까 걱정을 하면서 잘 모셨다. 따라서 '구렁이'라 부르지도 않고 '지킴' 또는 '지킴님'이라고 높여 불렀다. '구렁이'라 부르는 것은 금기(禁忌)였던 것이다. 이견(李建)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에 보면, "풀이 무성하고 습기가 많을 때는 뱀이 구렁이나 처마, 마루 밑, 자리 아래 어디거나 기어들여와 잠잘 때 피하기가 어렵다. 섬사람들은 뱀을 보면 '부군신령(府君神靈)'이라 하여 쌀과 맑은 물과 술을 뿌리면서 빌고, 죽이지를 앓았으며, 만일 뱀을 죽이면 재앙이 내려 발꿈치도 움직이지 못하고 죽는다고 알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뱀은 중국에서도 신으로 모셨다. 복희씨와 여와씨(女媧氏)는 뱀 몸통이에 사람의 얼굴인 형상이었다. 중국 사람들은 물의 신(河神)의 모습도 뱀이라고 믿었다. 일본인들도 뱀 자체를 시조신으로 여긴다. 일본을 건국한 천조대신(天照大神)의 동생 소전명존(素戔鳴尊)은 머리가 여덟 달린 뱀의 몸에서 칼을 꺼내 나라를 지키는 보검으로 삼았다. 이것이 일본 3대 국보의 하나로 전해지고 있는 천총운검(天叢雲劍)이다. 희랍신화의 최초 인간은 '케크로스'라는 뱀이고 헤브라이신화의 첫 여자 '에와'도 뱀이었다. 그리스 신화 아폴론의 아들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의 신'이다. 이 의술신의 딸이 들고 다니는 단장에는 언제나 한 마리의 뱀이 둘둘 말려 있었다. 이 뱀은 의신의 신성한 하인이었고, 해마다 다시 소생하여 탈피함으로써 새로운 정력을 소생시킨다는 스테미너의 심벌로 간주돼 왔다. 지금도 군의관의 뺨치는 십자가 나무에 뱀 두 마리가 감긴 도안이고, 유럽의 병원과 약국의 문장은 치료의 신, 의술의 신을 상징하는 뱀이다.

한편 뱀은 민간의료의 약용으로 쓰인다. 약용으로 쓰는 뱀은 주로 살모사, 구렁이, 칠점사, 독사 등이다. 뱀은 정력강장 작용을 하고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 하강작용을 하며, 일체의 허약성으로 오는 질환에 사용된다고 알려졌다. 뱀허물도 중요한 약재였다.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 『산림경제(山林經濟)』 등에서도 뱀 허물이 약재로 쓰인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뱀허물이 정장, 모든 상처에 파리와 구더기를 없애는데, 태(胞衣)가 나오지 않을 때, 경풍(驚風) 등이 쓰인다고 했다

현실 속에서의 뱀의 부정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상 세계는 뱀의 주무대이자 무대의 주인공이었다. 심지어 동물 가운데 뱀처럼 상상의 세계에서 많은 이야기를 가진 동물도 없었다. 한국 설화 속에서 뱀은 인간의 여러 얼굴을 보여주는 대리자로서 인간 내면의 여러 요소가 기묘한 동물인 뱀의 입과 몸을



빌려서 나타난다. 설화 속에서 뱀은 은혜를 갚는 선한 존재로, 복수의 화신으로, 때로는 탐욕스런 절대악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래 묵은 구렁이인 이무기는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고 싶은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상징이다. 또한 저승 세계에서 뱀은 악인을 응징하는 절대자로 나타나며, 악한 사람은 뱀이 되어 다시 태어나기도 했다.

올해는 육십갑자의 계사로 검은 '흑'에 해당하는 '계'와 뱀을 상징하는 '사'가 합쳐져 의미상으로 검은 뱀 '흑사'의 해이다. '사(巳)'에는'식물이 싹이 터서 한참 자란 시기'라는 뜻이 담겨 있다. 우리 모두가 과거의 허물을 벗고 참 불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는 한해가 되기를 서원한다.

김종열 기자

치아교정

심미보철

임플란트

치아미백

사랑니발치

스케일링

잇몸치료

충치치료

불교충지종 교도들에 한해  
10~20% 할인

림플란트치과

LIMPLANT DENTAL CLINIC

원장 임경민

미국 보스턴대학교 임플란트학과 연수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수료(임플란트과정)

림플란트치과  
국민은행 건물 6층

2

제기동역

신원은행

동북침과시장

하나은행  
하이마트

영두동  
롯데대형

영두역

동대문구청

▶진료시간

평 일 AM 09:00 ~ PM 06:00  
토 요 일 AM 09:00 ~ PM 01:00  
점심시간 PM 01:00 ~ PM 02:00  
공 휴 일 휴 진

▶상담전화

02.967.2228

변호사 하동길

종합법률사무소

상담전화  
02.596.4600

가족의 마음으로  
어려운 법률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세무,  
형사, 민사, 가사,  
특히 전문 개인회생,  
파산 특별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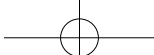
변호사 하동길 종합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1715-3 동구빌딩 201호

158호\_C.indd 6

2013-01-02 오후 4:50:04





## - 제3회 충지정보 전국 통신원 워크숍

## 화합과 소통의 메신저로 더 힘찬 한해를

12월 14일- 15일 대전 만보사, 유성온천 일원

제3회 충지정보 전국 통신원 워크숍이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대전 만보사와 유성온천 일원에서 열렸다. 눈이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20여명의 통신원들이 만보사로 모여들었다. 충청, 전라 교구장 범우 정사, 만보사 주교 승원 정사, 백월사 인지심 전수, 만보사 묘원화 전수 및 충청, 전라 신정회 민순분 회장, 만보사 정유내 보살, 만보사 유복근 통신원이 전국의 통신원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일년 만에 다시 모인 정보 통신원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 범우 정사의 유쾌한 특강

만보사 주교 승원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된 임제식은 충지종 교화발전과 정보 통신원 워크숍원만을 서원하며 비로자나 부처님께 불공을 올렸다. 집공을 마친 만보사 주교 승원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보의 발전을 위해 각 지역 사원에서 고군분투하시는 통신원 여러분 들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통신원 워크숍을 이 곳 만보사에서 개최하게 되어 주교로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며 개최를 축하하고, 원만이 모든 행사가 진행되기를 서원했다.

이어 김종열 기자의 사회로 개회식이 열렸다. 충청,전라 교구장 범우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보 통신원 워크숍이라는 뜻 깊은 행사를 충청, 전라교구의 대전 만보사에서 개최하게 되어 교구를 맡고 있는 교구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통신원들은 통신원이라는 한정된 역할 뿐만이 아니라 각 사원의 주도적인 역할들을 솔선수범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아무쪼록 아무 탈없이 통신원 워크숍이 원만 회향하기를 비로자나 부처님 전 서원 합니다.”며 전국에서 모인 통신원들을 환영했다.

지성 통리원장은 총무과장 서강 정사가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벌써 정보를 창간한지도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효강 종령님 통리원장 시절에 창간된 ‘충지정보’는 그동안 종단의 여러 현안과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을 교도들에게 전하는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교도들의 지대한 관심과 여러 스승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대전 만보사에서 개최되는 제3회 충지정보 전국통신원 워크숍에서는 각 지역과 사원을 대표하는 통신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의 편집방향과 앞으로 어떤 신문으로 발전하면 좋은지를 허심탄회하게 토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보를 취재, 편집 제작하는데 바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며 정보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충청,전라 교구 지회장인 민순분 회장은 “멀리서 찾아주신 통신원 여러분들을 교구의 모든 교도들을 대표해서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계시는 동안 평안하시고, 좋은 결과를 안고 각자의 사원으로 돌아가시기를 서원합니다.”며 통신원들을 격려했다.

잠깐의 티 타임으로 추위를 녹이고, 워크숍 특강이 이어졌다. 종단의 교육위원이기도 한 충청, 전라 교구장 범우 정사의 “생각을 바꾸자”라는 주제로 약 한 시간가량 특강이 있었다.

특강에서 범우정사는 “사람이 한 생각 바꾸면, 사는 이곳이 바로 극락이요 즐거움의 연속이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며 강의 내내 적절한 비유와 유머로 특강의 주제를 통신원들의 가슴깊이 새겼다.

이어 김종열 기자의 정보 현황 방향과 오늘 논의해야 할 주제 등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친 후 만보사에서의 행사를 마무리 했다. 인근 토속 음식점에서 저녁 공양을 한 후 숙소인 유성 온천지구로 향했다.

## 밤을 잊은 열띤 토론

숙소인 경하온천호텔에 여장을 풀 통신원들은 먼저 온천욕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저녁 8시30분 한방에 모인 통신원들은 정보 발전을 위한 자유 토론을 시작했다.

먼저 편집위원회를 대표해서 이인성 회장이 “추운 날씨에도 먼 곳 까지 찾아주신 통신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충지종은 많은 행사를 통해 대, 내외적인 위상을 높이 올리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행사가 원만 성취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통신원 여러분들의 노력도 한 몫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더 열정적인 활동으로 정보 발전에 이바지 해 주시기를 서원합니다.”며 인사말을 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정보의 사진 설명이 없어 나이 드신 노 보살님들이 사진을 이해하기 힘들다. 내년도 편집부터는 사진설명을 넣자.” 는 의견과 “각 사원에서 올라오는 기사는 통신원 취재를 바탕으로 기자가 보충정리하고, 통신원 기명기사로 나가자.” 그리고 전년도 계획했던 분기별 지역 탐방이 종단의 행사 등과 겹쳐져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올해는 미리 일정을 정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행하자. 일 년에 두 번 정도 모임을 갖고 한번은 공동취재로 5월 중에 시행하고, 워크숍은 11월중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각 사원과 교구의 조그마한 행사도 직접 취재가 불가능하면 기자를 요청하는 방안도 냈다. 자유 토론은 밤 12시가 훨씬 넘어서야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는 통리원 서강 총무과장, 벽룡사 주교 범일 정사, 전주 흥국사 주교 지정 정사가 참석하여 통신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 했다.

## 여진미술관 탐방

밤새 그동안 못 다한 이야기꽃을 피운 통신원들은 아침 공양을 마치고, 불교조각장 이진형선생이 설립한 여진 미술관 탐방에 나섰다. 숙소에서 약 20분을 달려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에 위치한 미술관으로 향했다. 약간은 흐리고 추운 날씨였지만 불교 공예의 진수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모두 가 설렌다. 잘 준비된 진입로에 들어서자 주차장 여진선원이라는 현판이 보인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배를 드리고 제 1 전시실부터 둘러보기 시작했다. 전시실에는 삼천석가모니좌상과 석가모니 고행상, 천수천안관세음보살상, 사천왕상, 나반존자 등 이진형 원장 작품이 전시되어있다. 전시품에는 장곡사 약사여래상과 기림사 건철관음상, 상원사 문수동자상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모작(模作)과 어린 아기 모습의 천진불, 동자상도 있다.

1618㎡의 부지에 전시실, 수장고, 연구실, 공방(무형문화재전수교육실) 등의 시설로 이루어진 여진미술관의 설립자 이진형 선생은 충지종 통신원들을 위해 직접 불상 제작 과정을 설명하고 제작 시연 까지 해, 평생 한번 만나기 힘든 불모의 작업현장을 체험했다.

모든 아쉬움을 뒤로하고, 동학사 사하촌에서 점심 공양을 한 뒤 각자의 사원으로 출발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준 서강 정사님, 범일 정사님, 민순분 회장님, 정유내 보살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충청전라 모든 교도들에게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가 원만하기를 서원한다.

## 참석 하신 분

스승님 = 범우 정사, 범일 정사, 지정 정사, 서강 정사, 인지심 전수, 묘원화 전수

대전·충청교구 = 민순분 회장, 정유내 보살

편집위원 = 이인성, 최영아, 박정희, 강경민

통신원 = 김옥임, 장경임, 권순복, 유복근, 김경숙, 김경민, 오인숙, 고지현, 한경림, 여순애

진행 = 장동욱 계장, 배공주 교무, 김종열 기자.



▲ 만보사에서 기념촬영



▲ 특강하는 범우정사



▲ 범우정사 특강에 활짝핀 웃음



▲ 열띤 분위기의 자유토론



▲ 여진 미술관 이진형 원장의 불상 제작 설명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충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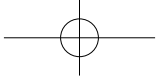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충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충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 교무실 : 051-555-4458 | 행정실 : 051-556-0281 | 교장실 : 051-552-0011





##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千手千眼)’으로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대자비심(大慈悲心)의 관음보살’

불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보살, 천수관음보살(千手觀音菩薩)은 우리 불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가장 많이 칭명하고 있는 보살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염송하거나 예불을 올릴때 독송하는 경 가운데 하나가 『천수경』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보살이 바로 천수관음보살입니다. 이 보살의 완전한 이름은 ‘천수천안관세음보살(千手千眼觀世音菩薩)’ 이고, 『천수경』을 갖추어서 부르면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碍大慈悲心陀羅尼經)』이라 합니다.

이 경의 제목을 풀어쓰면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千手千眼)’으로 사바세계 중생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고 들으시는 보살님(觀世音菩薩)께서 넓고(廣) 크고(大) 둥글고(圓) 가득하고(滿) 걸림이 없는(無碍) 큰 자비심(大慈悲心)으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라니(陀羅尼)를 설한 말씀(經)이란 뜻으로, 경전의 제목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천수관음보살의 대자비심과 공덕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고통에 허덕이는 일체중생을 구제한다는 데서 천수천안이라 이름한 것입니다.

천수천안관세음보살(千手千眼觀世音菩薩)을 달리 천비천안관음(千臂千眼觀世音菩薩)이라 합니다. 여기서 수(手)는 손이고 비(臂)는 팔을 의미하는데, 천 개의 손이 있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천 개의 팔이 있다는 것이니 천수(千手)는 곧 천비(千臂)요, 천비는 바로 천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은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을 뜻하지만만, 천수천안이 반드시 천 개의 손과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 것입니다.

천수관음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굳이 세어 보지 않더라도 천 개가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천은 실제의 수가 아니라 ‘많다’는 뜻일 뿐입니다. 만약에 천(千)이라는 숫자 대신 만(萬)으로 표현했다면 당연히 ‘만수만안관세음보살’이라 했겠지요.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천수천안을 번

역할때는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며, 실제로 서역이나 티베트에는 1,000개의 손을 표현한 그림도 있다고 합니다. 천 개를 표현하든 만 개를 표현하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징과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천 개의 손, 천 개의 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살상(菩薩像)이 나타내고자 하는 본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수(千手)’는  
광대무변(廣大無邊)한 자비를 상징  
‘천안(千眼)’은  
원만자재(圓滿自在)한 지혜를 상징

‘천(千)’은 무량(無量)·원만(圓滿)의 뜻이며, ‘천수(千手)’는 자비가 광대무변(廣大無邊)하다는 것이며, ‘천안(千眼)’은 지혜의 원만자재(圓滿自在)함을 상징합니다.

즉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은 끝없는 자비와 걸림없는 지혜로써 중생들을 구제하신다는 뜻으로, 어떻게 구제하시는가 하면, 일체중생들을 두루 살피고 직접 거두어서 보살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구제하시는가 하면, 바로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손바닥에는 각기 하나의 눈이 있어, 일체중생의 괴로움과 고통을 천 개의 눈

으로 보고, 천 개의 손으로 구제하십니다. 이것은 일체중생을 많은 눈으로 관찰하고 커다란 자비를 베풀어주시겠다는 모습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업무와 용무가 너무 많아 아주 바쁠때 ‘손이 모자란다. 손이 열 개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곧잘 합니다. 손이 열 개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으며 일이 많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겠지요. 이와같이 손(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쁠때는 열 개가 아니라 천 개, 만 개가 더 필요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특히 일체중생

##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의 불보살 이야기 (9)

# 천수관음보살 (千手觀音菩薩)



법경 정사



▲ 낙산사 부타전의 천수관음상

을 두루 보살펴야 하는 관음보살의 입장에서 은 더많은 손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일체중생을 두루 보살피시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천수천안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와같이 천수관음보살은 천수천안으로 인간세상 뿐만 아니라 지옥에 빠진 중생까지 구제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일체 소원까지 들어주고 계십니다. 다시말해서 천수천안으로써 일체중생을 구제하려는 염원을 담은 보살이 바로 천수천안관음입니다.

이러한 대자비심의 천수관음보살을 밀교에서는 ‘대비금강(大悲金剛)’이라 부릅니다. 대자비의 금강보살(金剛菩薩)이란 말입니다. 금강(金剛)이란 이름은 모든 불보살에 동일하게 붙는 밀호(密號)로 밀교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천수관음상은 대개 얼굴 하나에 3개의 눈을 가진 일면삼목(一面三目)의 형상을 하고 있거나 11개의 얼굴을 지닌 11면(面) 또는 27면(面)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일면(十一面)’은 지난호에 말씀드렸던 ‘십일면보살’과는 조금 다릅니다. 11면(面)을 하고 있는 점은 둘 다 같으나 지난 번의 ‘십일면관음보살’은 손이 둘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십일면의 천수관음’은 손이 여러 개라는 점이 다릅니다. 즉 얼굴은 11개로 같지만 각기 손의 숫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수관음은

손이 여러 개이면서 얼굴이 11개이므로 이를 ‘십일면천수관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십일면천수관음’은 관음도량으로 유명한 강원도 양양의 낙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낙산사 보타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천수관음(千手觀音)·성관음(聖觀音)·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여의륜관음(如意輪觀音)·마두관음(馬頭觀音)·준제관음(准提觀音)·불공견색관음(不空羅索觀音)의 7관음상과 32응신상, 1,500관음상이 봉안되어 있는데 관음신앙의 성지답게 그야말로 모든 관음상이 계십니다. 관음상을 많이 조성한 이유는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염원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1,500관음상 한 분 한 분의 천수천안과 32응신상을 곱하면 대략 5천 정도(1,500×32=4,800)인데, 이 숫자는 5천만 우리 민족의 인구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5천만 민족의 구원과 해탈을 기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십일면천수관음은 경주 기림사의 관음전 등 유명 사찰에 많이 모셔져있는데, 사찰을 들릴때마다 각 전각(殿閣)에 어떤 불보살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살펴보고 참배하는 것도 좋은 불공이 될 것입니다.

천수관음의 손이 둘인 경우도 있고, 28개 또는 그 이상에 달하는 것도 있고 더 많게는 42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운데 가장 큰 손

은 합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손은 양쪽으로 각각 20개가 있는데, 40개의 손바닥마다 눈이 있다고 합니다. 이 40개의 손과 눈으로 각각 이십오유(二十五有)의 중생들을 제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40×25=1000) 이십오유(二十五有)는 중생이 나고 죽는 고통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천수(千手)의 기원은 바라문교의 리그베다 신화에 나오는 천 개의 눈을 가진 인드라(In-dra)신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천수관음의 42수(手)는  
관음보살의 변화신·방편신

총지종의 수지독송 진언이  
‘여의보주수진언·보협수진언’

천수관음의 손 가운데 42개의 손을 일러서 ‘42수(四十二手)’라 부르고, 그에 따르는 진언을 ‘42수 진언(四十二手眞言)’이라고, 천수관음을 말할때는 항상 42수 진언이 따릅니다. 바로 관음보살의 다양한 모습과 위신력을 말해주고 있는 42가지의 수인(手印)과 진언(眞言)은 곧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고 소원을 들어주는 관음보살의 변화신(變化身)이요, 방편불(方便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2수(手)나 11면(面), 27면(面) 등의 형상은 관음보살의 멸죄(滅罪)·제병(除病)·연명(延命) 등의 일체공덕을 나타냅니다. 공덕이 일어나게 하는 방편으로 여러 얼굴과 42수(手)의 진언이 있고, 천수관음보살의 권속인 28부중(部衆)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28부중(部衆)을 천수이십팔부(千手二十八部)라 하며 모두가 방편과 변화신으로써 중생을 교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지종에서는 42수 진언 가운데 ‘여의보주수진언(如意寶珠手眞言)’과 ‘보협수진언(寶篋手眞言)’을 채택해 독송하고 있습니다. 이 진언은 종단의 성직자만 비밀전수(秘密傳授)해 수지독송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새해 불공과 상·하반기 49일 불공, 매월 월초 불공 기간에 지송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교화방편으로 42수 진언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관세음보살의 화도방편(化度方便)이자 중생구제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수관음은 다음과 같은 공덕을 지니고 있으므로, 천수경을 외을때나 천수관음의 42수 진언을 수지독송하거나 천수관음상을 참배할 때는 천수관음의 공덕과 위신력을 머리 속에 떠올리면서 발원기도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미쳐야 염력(念力)이 일어나고, 염력(念力)이 있어야 염험(靈驗)이 있게 됩니다.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모시면, 세세생생에 지은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삼재 팔난과 일체의 모든 액난을 소멸하며, 단명의 인연인 사람은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으로 고통 받는 분은 건강이 회복되며, 재물이 항상 충만해 궁핍함이 없고, 복덕과 지혜를 두루 갖추며, 닦은바 공덕이 속히 이루어지고, 금생에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사후에도 삼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후에는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108가지의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천수경을 일심으로 독송해 일체재난을 소멸하고 일체소원을 원만히 성취하시길 서원합니다. ‘옴 바즈라 다르마 흐리히. 다음호에서 준제관음보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림사 관음전의 십일면천수관음상



풍경소리

병 속의 새

여기 입구는 좁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깊고 넓어지는 병이 있다.  
조그만 새 한 마리를 잡아넣고 키웠다.  
이제 그만 새를 꺼내야겠는데 그동안 커서 나오지를 않는다.  
병을 깨뜨려서도 새를 다치게 해서도 안 된다.  
자, 어떻게 하면 새를 꺼낼 수 있을까?

김성동 / 소설가



마음

나룻배를 탄 나그네가 물속에 그만 칼을 잃어버렸습니다.  
나그네는 뱃전에다 흠을 땀니다.  
'이렇게 표지를 해두었다가 나중에 칼을 찾아야지!'  
그러나 배는 물살을 따라 그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잃어버린 칼이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은 아닐지 돌아보게 됩니다.  
맹난자/수필가

이달의 사진 지방 삼세 항상 나투시는 부처님



사진 = 여진 미술관 김종열 기자

VISUAL

불교총전

제43화

진실한 말씀을 믿는 경우

진실한 말씀을 안 믿는 경우

세상엔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 내가 그들을 제도해야겠다.

믿음이냐 계행이거나 지혜로써 능히 행하면 훌륭하게 성냄을 꺾고 고해에서 해탈하리라.

세상엔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 내가 그들을 제도해야겠다.

믿음이냐 계행이거나 지혜로써 능히 행하면 훌륭하게 성냄을 꺾고 고해에서 해탈하리라.

싸우지 마시오! 그러다 입 찢어 지겠소.

흥! 그대가 그 강을 건너서 이리 오면 그치겠소.

싸움을 그치시오! 그러다 코피 나겠소.

구경 값 500원! 그대가 저 강을 건너면 그치겠소.

이런 강쯤 식은 죽 먹기지.

헉! 저렇 수가. 강을 건너오고 있어.

얼른 나를 따라 건너시오!

헉! 저렇 수가? 대단한 속임수다. 저걸 배워 써먹자.

결결! 지성으로 굳게 믿으면 생사의 바다도 건너거늘, 강물 건너는 것쯤 대수인가?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할 수 있소! 어서 강을 건너시오.

거짓말! 세상 한 두 해 살아보나.

에게게? 겨우 발목까지 잠기네.

새가 날지 않으면 닭보다 못한 법! 남의 말에 연연하지 말고 직접 행하여 보라.

아이고~! 사람살려.

왜 잠자는 벌을 건드리나!

내용참조: “불교총전” 제2장 신심편 93p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 보 사

주 교 : 정사 승 원  
전수 묘 원 화

☎ 042-255-7919

백 월 사

주 교 : 전수 환수원

☎ 042-527-5470

법 황 사

주 교 : 전수 혜안정

☎ 062-676-0744

혜 정 사

주 교 : 전수 진일심

☎ 043-256-3813

흥 국 사

주 교 : 정사 지 정

☎ 063-224-4358

충청 · 전라 교구 일동

158호\_C.indd 10

2013-01-02 오후 4:50:50